지역서점 살리고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전주시, 특색 있는 서점 소개 지도 제작 · 독서진흥 프로그램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전주시가 지역서점의 특징에 맞는 지도를 제작하고 독서진흥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시는 갈수록 힘들어하는 지역 서점을 살리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그림책서점 ▲독립서점 ▲북스테이 서점 ▲카페형 서점 ▲커뮤니티 서점 ▲큐레이션 서점 등 특색 있는 서점들을 소개하는 서점지도를 제작키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를 통해 지역서점의 위치와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책과 함께 하는 전주여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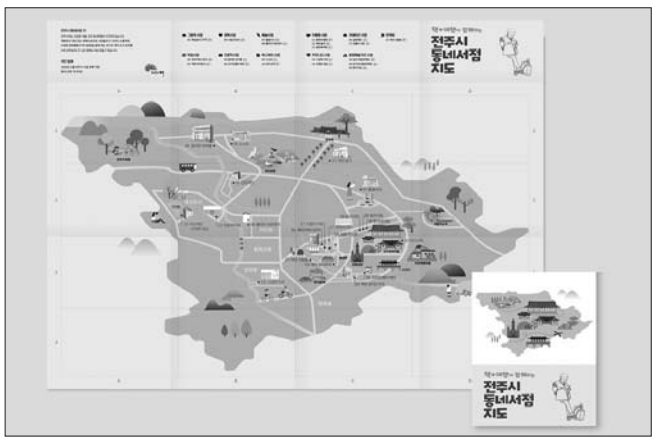
시는 또 지역서점들이 지역민들의 새로운 지역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12개 전주시 도서관은 물론 130개 공·사립 작은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도서관 앞 광장이나 유휴공간에서 동네책방 북마켓을 개최해 서점지기들이 추천하는 좋은 도서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작가초청 강연이나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지역 서점 순회 탐방, 책방지기와 함께하는 문화탐방 등의 콘텐츠를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늘려, 지역서점의 역할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서점들이 각기 다른 색채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독서운동, 글쓰기 모임 등 서점별 개성이 담긴 문화 활동을 독자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과 서점 간 원활한 소통을 펼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전주에서 운영 중인 지역서점은 1963년 문을 연 홍지서림과 동문예술거리 헌책방인 일신서점, 한가네 서점 등을 비롯해 최근 문을 연 동네책방까지 총 84곳이다.

시는 이들 서점의 접근성과 편리성, 친숙함을 활용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민들의 독서문화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주시 동네서점 지도(안).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역서점들이 그간 지역에서 펼쳐온 독서활동들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지역서점을 살리고 시민들의 독서지수를 높이며, 건강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부실채권 소각으로 희망의 빛 전해

전주시, 종교단체 · 금융권 힘 모아 39명 10억66000여만원 탕감

전주시가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시민들의 빚을 탕감해 희망을 되찾아 줬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28일 10억6,600여만원에 달하는 시민 39명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후원에 참여한 종교계와 금융권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따로 소각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부실채권 소각은 빚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단체가 후원한 1,000만원의 기금을 이용해 전북은행과 주빌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원금 2억5,400만원, 이자 8억1,200만원 등 총 10억6,600여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시는 이날 부실채권 소각에 도움을 준 대한불교 태고종 종무원장 진성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사무국장 김도영 씨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박춘기 전북은행 여신관리부 팀장에게도 전주시장 표창을 줬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대 종교단체의 후원을 통해 383명이 빚 63억9,000만원을 탕감함으로써 서민들이 빚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부실채권 소각 외에도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설계 상담, 취업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전환안내 등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소외계층의 파산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함께 채무자의 선고기일에 찾아가는 신용관리 교육을 통해 맞춤형 금융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무거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역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난 5년간 부실채권 소각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부실채권 소각이 채무불이행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더해져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새로운 출발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 중심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도시 청사진이 제시됐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전주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영유비텍(주)(대표 조근환)이 맡은 이 용역은 지난 6월부터 시민 설문조사, 전주시 현황조사, 부서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경제도시 ▲시민안전 최우선, 사람중심 안전도시 ▲첨단 ICT기술로 자연과 융합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시민과 손님이 편안하고 즐거운 문화도시 등 4대 목표와 12대 추진전략, 17개 서비스가 도출됐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환경을 지키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서비스로는 ▲입체적 주차공간 활용 서비스 ▲차량 소통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전주형 먹거리 구독 서비스 ▲일상이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 하베스팅 서비스 ▲천만그루 인프라 기반 도시 환경관리 서비스 ▲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방안 ▲3D 버추얼전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협의를 거쳐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한 뒤 5개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완산구 도심지와 전주시청, 전라북도청,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KBS 전주방송 등 총 13개 공공시설의 실내 공간정보 '3D 버추얼 전주'를 구축한 상태로 내년에는 덕진구와 혁신도시까지 확장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경제, 환경, 안전, 문화, 복지 분야에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쌀 전달식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쌀 전달식에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서영숙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개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신규로 조성된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을 전주시로부터 수탁해 유료로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은 덕진구 만성동 1372-7번지에 부지면적 2,258㎡ 주차 면수 66면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친환경주차구역, 여성주차구역, 일반주차구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료운영 시기는 내년 1월 11월부터다.

공영주차장은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 30분에 600원, 이후 15분마다 300원씩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일일 최대 부과요금은 6,000원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음식점에 방역물품 지원

31일까지 1000여 곳에 비말 차단 칸막이 · 손소독제 등 배부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 칸막이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해고 없는 도시' 협약 업소를 포함해 음식점 1,000여 곳에 비말 차단 칸막이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지역 식당에 비말 차단 칸막이 250개를 제공한 데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이번에 배부되는 방역물품은 비말 차단 칸막이 154개와 손소독제 1,700개,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3,000부, 마스크 1만2,000장, 거리두기 표시석 1만7,000개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돼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다.

시는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 등 3밀(밀집, 밀폐, 밀접) 환경이 우려되는 음식점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식·시음 및 집객행사 여부를 점검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방역수칙 실천업소인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고 음식점의 방역환경을 개선하는 등 음식점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